

I. 제목

히브리 원전 성경에는 사무엘상하는 한권의 책이었다. 70인경에서 상하권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었다. 본서의 중심인물인 사무엘을 따라 '사무엘서'라 불려졌으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탈무드나 유대인은 사무엘이라 하나 사무엘의 죽음 등 그후 사건으로 보아 저자는 미상이다. 기록연대는 왕국분열 (주전 922년) 이후 (삼상 27:6의 유다 왕들등에 근거)이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사건을 기록했다.

III. 본서의 특징

- (1) 사무엘의 등장은 사사시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빛에 선것과도 같다. 사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애굽, 시리아, 앗수르, 블레셋 등 강적에 둘러싸여 있었다.
- (2)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제사장, 선지자)과 사울(통일왕국의 초대왕)이다.
- (3) 본서의 8장에서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바뀐다.
- (4) 표면적 주인공 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들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 (5)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다. 한 사람의 죄악은 자신 뿐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다.
- (6)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결국은 실패자가 된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배운다.

IV. 내용분해

사무엘상은 내용상 (1)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블레셋의 승리 (1-7장), (2)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사무엘과 사울. 7-15장), (3) 다윗의 등장(사울과 다윗, 16-31장) 으로 나눌 수 있다. 삼상 1-7장까지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이다. 사사시대의 쇠퇴를 보여준다. 삼상 8-15장은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울의 등극과 통치이다. 인본적인 왕의 실패이다. 마지막 16-31장은 새 다윗의 예비이다. 왕권교체의 혼란기이다. 신본적인 왕의 예비이다.

V. 중심 내용

- (1) 사무엘상은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죽음까지의 내용이

다.

- (2)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기사로 시작된 사무엘상은 이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선택하게 된다.
- (3) 그러나 초대왕 사울은 그의 망령된 제사로 백성들에게 지지도를 잃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차기의 왕은 다윗에게로 돌아간다.
- (4)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과 관계를 맺게 되나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 (5)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고 다윗의 도피생활에서 해방된다

VI.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사무엘: 새시대를 연 성육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신약과 새천국시대를 여실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스라엘에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의 3중의 역할을 담당한 구약의 모세와 사무엘 중에 하나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예표이다.
- (2)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오묘하게 예표한다. 베들레헴의 비천한 목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다윗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의 생과 일맥상통한다.

VII. 사무엘상의 핵심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단어: 전환기. 이스라엘은 정치체제의 전환의 시기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이다. 엘리에서 사무엘의 통수권 교체, 사무엘에서 사울로 통수권과 정치체제의 전환, 사울의 왕가에서 다윗 왕가의 왕조교체 등이 있다.
- (2) 핵심절: 13:14; 15:22
- (3) 핵심장: 15장

VIII. 사무엘상의 중심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재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2:30).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12장에서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할 때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와 같은 역사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성서의 기록들은 왕들과 나라의 운명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신 28장; 사 2:11-23).

사무엘상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거룩한 자들의 생명을”(우리말 본문에서는 “발을”)(2:9)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묘사한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로 간주된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

해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요 17:9).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확신한다 (살후 3:2-3).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3:9).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사무엘: 8:6,21; 10:20-24; 다윗: 23:9-13; 30:7-8).

사무엘상은 기도의 중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7:5).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며, 후에 다시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1:9-11; 2:1-10). 사무엘상의 다른 부분들에는 사무엘 (8:6; 12:18)과 다윗 (23:11)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증거한다.